

지역 매아리

부안군, 제3농공단지 분양 공고

부안군은 지난 2일 행안부 여의 114번지 일원에 조성한 부안제3농공단지 총 32만 7102㎡ 중 산업시설용지 34필지 22만 8791㎡에 대해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분양공고 했다고 밝혔다.

부안제3농공단지에는 국도 23호선과 30호선에 인접하고 있으며 국제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2023년 세계웹퍼리 연계 교통 인프라의 조기 확충으로 수도권과 국외 물류이동이 원활하고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도시가스 공급 등 입지여건이 우수해 많은 업체에서 분양의향을 보이고 있다.

분양접수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부안군청 미래전략담당관실 투지유치팀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며 분양가격은 ㎡당 12만 200원으로 입주대상 업종은 식료품, 음료, 금속가공제품, 화학제품, 전자제품, 플라스틱제품, 전기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10개 분야 제조업이다.

군은 입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 등을 심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해 분양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입주업체는 입주신청 후 20일 이내에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금 30% 납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60%를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입주업체가 공장 신축과 조기 공장가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국조 단군숭배제 거행

고창군 단군성전보존위원회(위원장 김학수)가 최근 단군성전 본전(고창읍 교촌리 25-5번지)에서 제4852주년 개천절 국조단군 숭배제를 거행했다.

이날 제례는 초헌관(유기상 군수), 아헌관(안재운), 종헌관(정재원), 지역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군 단군성전 본전은 국조 단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군민의 순수한 성심으로 건립됐고, 당시 건립에 동참한 인원만 1200여 명에 달했으며 많게는 벼 20석 적게는 1가마씩 무려 1125석이 모여 1979년 성전을 세웠다.

국조단군 숭배제는 서기전 2339년(戊辰年), 단군기원 원년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 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행사다. 문화민족으로서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우리나라 건국이념인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의 정신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제례의식이다.

한편, 고창군 단군성전보존위원회는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영정을 모셔놓고 매년 10월 3일 국조단군 숭배제를 거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새로운 볼거리로 이목 집중

정읍 구절초축제 화려한 막 올라... 공연·체험행사 풍성

대한민국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5일 전국 최대의 구절초 군락지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작년보다 더 새로워진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축제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축하음악회는 5일 오후 4시부터 가수 변진섭과 김창완 밴드의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많은 관람객이 몰리며 대성황을 이뤘다.

행사장 곳곳에 부스로 구성된 저자거리에서는 먹거리에서부터 체험 거

리, 볼거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관광객들을 즐거움으로 이끌었다.

제14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앞으로 남은 2주간 다양한 볼거리로 풍성하게 진행된다.

아름다운 꽃들과 화려한 공연을 비롯해 특색 있는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꽃길 페레이드, 별별 서커스 등으로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사람의 방송국과 꽃길 음악회, 버스킹 등 부대공연과 유색버 아트 경관, 농특산물 먹거리장터 등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축제장을 가득 메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60만 명 이상이

관한 구절초 꽃 축제에 올해도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남은 축제 일정도 관련 부서와 단체,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올해 축제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축제장을 찾은 많은 분들이 즐겁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을철 지역 대표 축제인 구절초 꽃 축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아시아인투어 고창대회 가 11일까지 고창방장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하늘로 뛰어들다’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아시아인투어 고창대회 열려

전북 고창의 방장산 활공장 아시아 최고의 패러글라이딩 선수들이 지축을 박차고 올라 드넓은 푸른 하늘 속으로 뛰어든다. 아찔함도 잠시, 해발 700여m 아래로 농생명식품수도 고창의 누런 황금들판과 멀리 서해바다까지 눈에 담는다. 고창 방장산 활공장은 주변에 전선이나 바위 등 장애물이 없고,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다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에 최적지로 평가된다.

고창군은 '2019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아시아인투어 고창대회'가 오는 11일까지 고창방장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선수를 포함한 14개국 110명의 패러글라이딩 전문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사전대회 격인 '프레 패러글라이딩 월드컵'을 열어 대회장어건은 물론, 음식, 숙박, 교통 등에서 호평을 이끌어 냈다.

군은 올해 투어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내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본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창모양성제' 기간과 맞물려 국내외에 축제 홍보와 함께 고창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오후 7시에는 고창청소년수련관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

철 고창군의회 군의장, Stephanie Malbos CIVL(국제행패글라이더위원회)회장, 대한체육회 김홍준(전 국회의원) 국제교류대사, 대한패러협회 홍성태 회장, 고창군패러협회 유정권 회장, 송진석 조지위위원장(진글라이더 대표), 정동안(전)한국항공협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기념식이 진행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환영사에서 "세계 각국의 활공인 여러분의 고창 방문을 환영한다"며 "전 행정구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고창의 먹거리는 물론 선사시대부터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자연과 문화관광자원을 맘껏 즐기시며, 안전한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력 추진

부안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겨울 강력한 방역활동으로 AI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도 최고 수준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방역을 위해 오리농가 사육 제한을 확대 추진하고 철새도래지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써 소독·예찰을 강화해 방역관리에 집중키로 했다.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돼지 등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해 항체발생률이 부족한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ASF와 관련해서는 돼지농장 담뽕관제를 운영해 농가 예찰 및 관리에 집중하고 방역·통제상황 안전감찰, 행사 및 축제 취소·축소 등 중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관련 차량으로 인한 농장간 질병전파가 많았던 과거 사례를 감안해 기차·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겨울 AI 차단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올해도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AI·구제역·ASF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련업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김장 채소 관리 철저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가을철 잦은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와 배추 등 김장 채소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센터에 따르면 8월 하순 김장 채소 파종과 정식시기에 잦은 비로 인해 일조량 부족과 토양수분 과다로 생육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또한, 9월과 10월 들어 태풍의 연속 발생으로 병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작황을 유지하기 위해 재배 농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장 채소의 무름병과 노균병은 배수로 정비와 예찰을 철저히 해 발생 초기에 예방 차원에서 적용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 시기와 횟수

를 지켜 방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실, 속잎 할 것 없이 시들어 주저앉고 뿌리까지 부패해 악취가 나게 되므로 예찰과 방제가 아주 중요하다.

또한, 배추흰나비와 파밤나방 등 해충도 정밀예찰을 통해 방제를 철저히 하고 생리 장애 발생에 대비해 복합 미량요소를 엽면살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센터 관계자는 "태풍에 신속히 대응해 2차 피해를 줄이고 고품질의 김장 채소를 수확할 수 있도록 생육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치매 극복 선도학교 현판식 가져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확산하고자 신대인 왕산여자중학교를 치매 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 사업은 지역 내 교육기관인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치매 조기 감진을 활성화하고 부모님들의 치매 예방 생활습관을 강화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고 치매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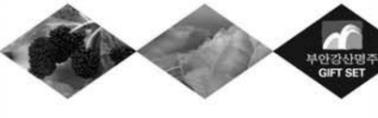
시 관계자는 "치매는 지역사회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모두의 과제"라며 "더 많은 학교가 치매 파트너 양성 과 치매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해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539-6736) 또는 중앙치매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80
www.gangsanwine.com